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394 편

제1독서: 창 세 18,1-10a
 제2독서: 골 로 1,24-28
 복 음: 루 가 10,38-4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 보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 료



실상 필요한 것

경 규 봉 신부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쉼 곳을 찾으셨으나 사마리아 사람들로 부터는 냉대를 받으셨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두 자매로부터 환영을 받으신다. 마르타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예수를 환대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충실히 들음으로써 예수를 환대했다. 즉, 교부들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마르타의 활동적 사랑과 마리아의 관상적 태도로서 환대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타는 마리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르타는 식탁에의 봉사가 말씀에의 봉사보다, 즉 활동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마르타에게 예수께서는 거경스러움과 연민의 정을 나타내 보이시며,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봉사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신앙은 들음으로서 오며,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으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Lk 12,31), 예수께서는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빈민 구제 사업, 의료사업 등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곧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다(Mt 25,40).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활동에만 열매에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어라고 말씀하실까?

실천적 사랑과 봉사, 이는 곧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귀중한 몫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선행과 자비를 실천하는 힘이 바로 주님과 의 인격적 만남—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울리는 징과 요란한 꾀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마리아 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활동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르타처럼 잠깐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다소곳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월명동 보좌신부)



블랙 리스트

—나에게도 살 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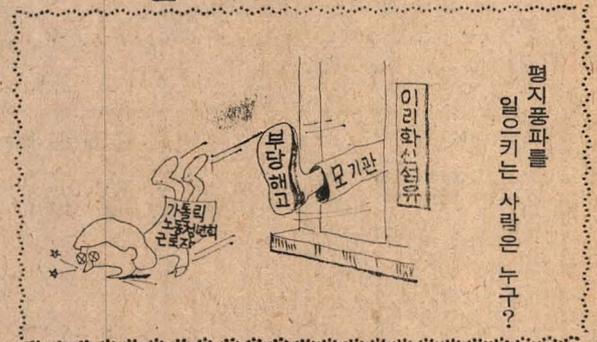
거듭되는 부당해고를 단식으로 고발한 어린 처녀들의 주장을 보면 「블랙 리스트」라는 낱말이 나온다. 국어 사전은 블랙 리스트(black list)의 뜻을 ‘흑표(黑表), 주의 인물(注意人物)을 적어 넣은 명부’라고 풀이하고 있다. 일제시대부터 악명 높았던 「요시찰인물」이란 낱말이 생각나 심적하다. 사실 블랙 리스트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시킨 후, 해고당한 노동자의 성명을 다른 기업에 보내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의 명단’을 말한다. 이는 어렸을 때에 본 만화에서처럼, 다른 동물의 몸통을 감고 친척히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뱀같은 낱말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어찌 그리도 잔인한지 모르겠다. 모진 것이 목숨이라 했는데, 쫓아낸 것으로는 부족해서 밥그릇마저 채앗아 가다니. 연거푸 그렇게 해고시키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보복이다. 정치적인 보복만 하더라도 그렇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피를 부르는 보복은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그러니 보복은 없어야 한다. 블랙 리스트 없어야 한다. 차라리 그게 그렇게도 꼭 필요하다면 한 곳에 묶어 놓아라.

식당에 들어갈 자유마저 빼앗긴 어느 영화의 주인공은 끝내 그 마을을 쫓달로 만들고 만다. 그는 월남전의 영웅이고 유격전의 명수이다. 그런데 싸움터에서 돌아온 그에게는 살육자라는 손가락질과 냉대 뿐이다. 거기다가 그 마을의 보안관은 마을의 평화를 위해 그를 쫓아낸다. 보안관이 곧 범이래면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의 분통이 드디어 온 마을을 짓기 버리고 만다. 그래도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무언가를 던져주는 영화다.

사람은 누구나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숲 정 이 산책



근로자 단식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우리 인간에게 그 설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언자적 사명 수행에 결코 게으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 역사의 장이 막을 내린 10·26사태 이후, 우리가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우리는 사람과 구호만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치우리의 타락, 고쳐져야 할 제도적인 장치, 악순환만 부르는 정치적인 보복 등의 근원적인 문제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전부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징표를 해명해 주어야 합니다.

3. 지난 해, 소위 「태창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교회는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착하게도 그들은 교회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거듭되는 부당 해고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여린 몸으로 단식을 해가며 그 처지를 호소해야만 합니까? 이번 사건이야말로 생명을 짓밟는 인간이하의 처사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떠한 표현을 빌어서라도 기압주와 몇몇 근로자와의 문제라고 몰아부치던간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를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시대를 여러가지 모습으로 양심법 사건을 조작하여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당국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우리의 조사를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교회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충실히 노동해야 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각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 사회는 사회대로 현 실정에 따라 국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사목현장 67)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 하단 계속)

결 의 문

노동은 인격에서 나오고, 그 인격의 모습을 피조물에 새기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또한 노동은 근로자와 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근로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소위 “태창 사건” 이후의 거듭되는 부당해고는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복음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교활동을 침해하는 소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정부는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의 탄압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1. 태창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즉각 태창에 복직되어야 한다.

1.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의 취업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983년 7월 13일

천주교 전주교구 성직자.수도자.평신도일동

부당 해고자를 위한 기도회

일시 : 7월 18일(월) 오후 8시

장소 : 이리 창인동 성당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이러한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임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5.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도적인 폭력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1983년 7월 11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 교우의 집

한 일 옷 감

옷감, 파티복, 칠구류, 수의

전화 ㉠7.2.0.3

구 남부배차장

(영신당약방 옆)

조 성 순(테레사)

유치원 교재 교구전문

중앙 교육 사

전화 (72) 8.8.1.8 번

이 승 호(다마소)

[SS] FASHION 전주 특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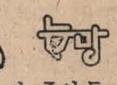
버 킹 킹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위 크 엔 드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챌 린 저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200주년 특별헌금 주일(7월 24일)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특별헌금을 24일(주일)에 실시합니다. 200주년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우 여러분의 정성어린 봉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떼제(Taizè) 기도회

전주에서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떼제 기도회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떼제 공동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수사님들과 함께 가지게 될 이번 기도회는 기도의 좋은 분위기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때 : 23일 저녁 8시 장소 : 중앙 성당 강당

비고 : 24일 새벽에는 떼제 수사님들 일행과 함께 누갈따 묘소를 참배합니다.

□ 전국 마리아 빨리

“일치된 세계를 향하여”라는 제목 아래 전국 마리아빨리가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미 휘콜라레 운동의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리게 될 이번 마리아빨리는 작년부터 함께 주력해 오고 있는 일치회 정신을 서로간의 사랑 안에서 보다 깊이 알아보며 생활 체험을 통해 일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휘콜라레 이상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있기 바랍니다.

일시 : 7월 23일 12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장소 : 대전 실업 전문 대학교

□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이전

구 성모병원에 있던 행복한 가정운동 교구위원회가 가톨릭 센터 3층으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언 가족계획 상담 및 성교육의 개인상담 및 단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 ☎5098

□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요?

교구 홍보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이리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 「성가를 들으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성가를 들을 수 있으며 명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라며 조연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숲정이 원고 모집

교구 홍보국에서는 보다 알찬 주보를 만들기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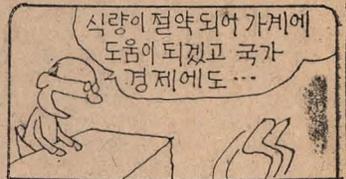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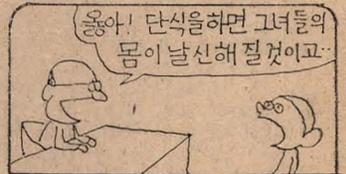
모집기간 : 수 시

원고내용 : 신앙 수필, 시, 전의사향, 미담, 건설적인 비판 등

원고량 : 200자 원고지 6매 이내

보낼 곳 :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오심이(519) 김병오



두뇌개발·인성교육
관성문주산학원
 • 유능한 강사진
 • 독자적인 학습내용
 • 산술능력 책임지도
 ☎ 72-0754
 서노송동 사무소 앞 2층
 박희지도(봉수), 이그레고리아(진숙), 박혜아(영숙)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 3032
 윤(베드로) 종순

청자당제과점
서울분식
 각종 빵과 결혼·생일·선물용 케익 전문
 ☎ ② 0910
 군산시 중앙로 1가 68(우체국 옆)
 김보나벤뚜라(영수) 이스텔라(규자)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
 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베드로·김안나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 18일~21일, 장소-부안 중계, 출발시간: 가톨릭 센터-오전 11시50분, 김제터미널-오후 12시40분, 부안터미널-오후 1시15분(시간 엄수 바람)
 2. 제6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한들-16일~17일, 무주-20일~21일, 장계-23일~24일
 3. 사목 방문: 19일-수튜·원평, 20일-대야·문율동, 21일-임실
 4. 제1회 전주교구 산간학교: 28일~31일, 장소-내변산(중계국민학교 근처)
 5. 제1회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회: 17일(오늘) 오후 2시~6시, 장소-센터, 대상-각분당 산간학교 지도자
 6. 농민회 임원 연수회: 30일~31일, 장소-가톨릭 센터
- 축! 영명: 성 알렉시오(17일)-서 정수 신부님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훈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1. 성탄반 예비자 교리: 오전반(수) 10시, 오후반(수) 7시30분, 7월 20일 시작
 2. 중학교 교리반: 주일 제미사후-산간학교 준비 바람 고등학교 교리반-주일 제미사 후 24일부터-산간학교 준비 위함
 3. 반미사: 8·9·28·23·21·4·33·5·12반
 4. 첫영성체 및 초등부 영세교리: 16일~8월 15일 오후 4시~5시30분(화~토요일), 대상-국교 3~6학년
 5. 중·고 산간학교 신청: 회비 4천원
 6. 어린이 여름 특별교리: 26일~30일(5일간)
 7. 어린이 여름 특별교리를 위한 어머니들 모임: 시간-오후 3시, 장소-강당. 19일-1·4학년, 20일-2·5학년, 21일-3·6학년, 22일-유치부
 8. 목주기도 100만칸 바치기: 12일까지, 301,298단봉헌
 9. 안신부님(이나시오) 영명축일: 31일 기도바랍니다
 10. 성전신축 신입해 주신분: 신입 2억 돌파
추가신입-김철수 300만원(추가 150만원), 박상기 50만원(추가 30만원), 신태순 150만원(추가 50만원) 최준선 5만원(추가 3만원), 장남수 100만원(추가 50만원), 이춘수 50만원(추가 30만원), 신입-우홍제(50만원), 정영수(5만원), 최성훈(100만원), 박광문(200만원), 신입누계-201,497,600원, 남입누계-62,578,500원
- 지난주 봉헌금: 917,293원 교무금: 705,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웅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훈성
사도 회장 이준재

1. 감사드립니다: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준비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25일~31일, 오전 9시~12시
 3. 환자봉성체: 19일 오후 3시, 환자 모신 가정은 신청
 4. 청년들 창립총회: 오늘 오후 7시, 많은 참여를 바람
 5.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3,035원 아파트: 59,300원
지난주 교무금: 231,000원 아파트: 16,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환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청년연합회 모임: 오늘 9시미사후, 교육관 영화상영 성모회: 공식미사 후(할머니회)
 2. 축! 복사단 조직: 총 31명, 토요일 오후 4시 모임
 3. 소년 백레시디움(가난한이의 모후) 창설: 단장-최광림; 부단장-이순애, 서기-김훈, 회계-현영애
 3. 영세예비자 교리반 입교환영식: 20일 밤 8시, 교육관
 4. 반장 추가 선임: 금암1반-송옥진, 2반-장상남, 3반-이덕례, 4반-김효순, 5반-김선덕, 6반-최덕례, 7반-서정옥, 8반-탁종자
 5. 구역장·반방 1일연수: 24일(다음주) 오후 2시~4시
 6.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25일~30일, 본당-오전 9시~12시30분, 장소-오후 2시~5시
 7. 청년연합회 지리산 등반: 8월 2일~5일(3박 4일)
- 지난주 봉헌금: 521,540원 교무금: 469,5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훈

1. 성모회 야외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상관방면
2. 교리교사 연수회: 7월 18일~21일, 장소-부안 중계
3. 중고생 산간학교: 28일~31일, 부안 중계
4.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 봉사위원장 이·취임: 사임-장영담, 신임-정동민
 6. 사도회 하계수련회: 27일~28일, 장소-미정
 7.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허테레사씨 지도
 8.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1일~6일 오전9시~12시
 9.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강기연 ②천 건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정동민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435,83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25일~31일까지
 2. 중·고학생 수련회: 26일~29일까지(3박 4일)
 3. 첫 영성체자반: 수녀님께 신청 바랍니다
 4.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5. 수녀님들 휴가: 23일까지
 6. 사제양성 후원회: 김나섭, 계 45명
 7. 차주전례: 독서-①박경환 ②박장준
신자들의 기도-김나섭·이덕열·이정민
- 지난주 봉헌금: 286,825원 교무금: 229,000원

(홍정미)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립

1. 성모회 릴레호: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 영성체자 첫모임: 23일 오후 5시
 3. 애령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애령사업에 뜻을 가진 모든 신자)
 4. 대학생회: 다음주 오후 5시, 본당내 모든 대학생들
 5. 중·고학생 하계수련회: 26일~29일, 회비-3,500원
 6.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노재두·박병열
기도-이귀래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홍성조·남상룡
기도-이은자·황현도
- 지난주 봉헌금: 166,230원 교무금: 362,4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2. 성화회: 공식미사 후
 3. 첫영성체: 공식미사시 있음
 4. 주일학교 6학년 수련회: 23일~25일, 코산천, 2천원
 5.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26일~31일 (물놀이 31일)
 6. 학생 하기수련회 참가신청 접수: 10일~20일
 7. 글로리아 성가대원 지리산 등반: 18일~20일
 8. 방지거 삼회: 다음주 있음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정식 ②최종만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김홍기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경양수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686,590원 교무금: 348,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④8404 사도회장 황희상

1. 주일학교 하기교리: 방학후 주일부터 시작
 2. 중·고생교리: 학사님들 수고해 주세요
 3. 신심단체 가입하여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 유치원 방학: 14일, 방학후 수리에 들어갑니다
 5. 예비신자 영세: 9월말 예정이오니 교리반에 참석
 6. 어머니 성가연습: 매 토요일 오전 10시
 7. 선봉기 기증하심 분: 윤안토니오 2대, 최아블로니오 2대, 은모니카 1대, 김안필모 1대, 김달마 1대, 이베로니카 1대, 김베드로 1대, 김시몬 1대, 김요아킴 1대
 8. 중고생 수련회: 27일~30일, 회비-5천원,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267,320원 교무금: 161,000원